

웅변은 '은'이나 대화는 '금'이다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⑧ 책 속에 차린 말의 잔치

'한보청문회'는 우리 토론문화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이야 그렇다치고, 변죽만 울려대는 국회의원들의 질문 내용은 참담함마저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어찌랴. 조금이라도 쟁점이 되는 사안일 경우, 목소리를 높이며 샷대질을 일삼던 국회 본회의 풍경을 그려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두번째 청문회는 첫번째 청문회보다 나아진 점에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거들먹거리며 권위를 내세우는 '선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그나마 희망적인 징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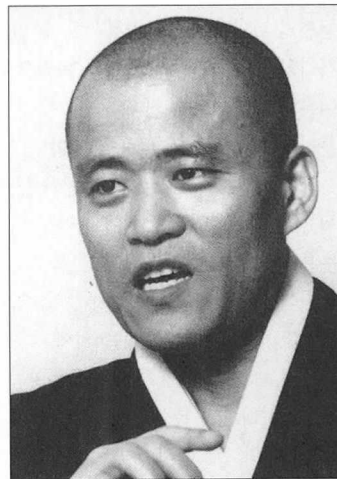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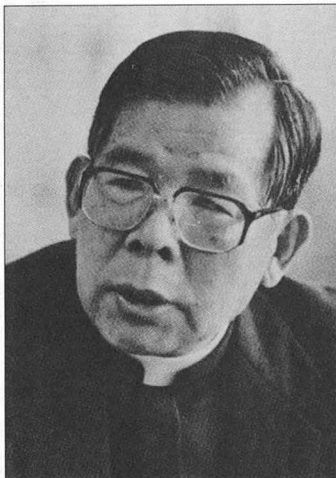
말이 필요 없다'

우리는 '대화'를 두려워한다. 아니, 거부한다. 대화와 타협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배우기는 해도 입시의 모범답안으로만 기능할 뿐이다. 토론의 장으로 마련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회의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처세법을 체득한다. 성인이 되면 남자는 군대에서 '말이 필요 없다'는 더욱 강한 반토론문화의 이데올로기를 주입받는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우리는 제대로 된 토크쇼 프로그램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 책도 마찬가지. 다른 장치 없이 대화로 풀어나가는 회곡집이나 대화집은 맥을 못추는 형편이다. 자연히 출간되는 분량도 많지 않다. 《대화》(통나무, 1991)는 이 방면의 책으로 가장 널리 알려졌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지금까지 약 10만부 정도가 팔렸다.

이 책은 철학자 김용옥씨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함께 여행하며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두사람의 대화부분은 책 중간의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고, 김우중 회장의 발언도 김용옥씨가 풀어쓴 탓에 대화집의 본령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대화가 없는 척박한 토양에 말의 꽃을 피우기 위한 부득이한 장치로 보인다. 김회장은 서문에서 우리 사회에 대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우리 사회는 '대화'에 과감할 줄 알아야 하며, 대화가 비록 체제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대화의 모색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진정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왼쪽 위부터
김수환·강원룡·
김우중·김용옥씨.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작업이 없이 우리 사회의 혼란은 극복될 길이 없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이 책은 대화체 여행기.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둘러보며 자신들의 전공인 철학과 경제에서부터 역사·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책의 성공요인을 내용과 형식의 절묘한 결합에서 찾는 남호섭(통나무 대표)씨는 김우중 회장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인다. 김회장의 이미지 고양에 초특급 베스트셀러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보다 더 낫다는 평가다.

편견과 이집을 허무는 대화의 힘

강준만 교수는 《대화》를 읽고 김회장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김용옥은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과 나눈

대화를 엮은 책 《대화》에서 김우중에 대해 극찬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는 이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지만, 나는 《대화》를 읽고 나서 김우중에 대한 생각을 다소 바꾸게 되었다. 이전보다는 김우중을 훨씬 덜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다." (《김대중 죽이기》에서)

《강원룡과의 대화》와 《이 땅에 평화를》은 《대화》에 앞서 나온 이 방면의 정수들. 종교지도자의 대화록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강원룡과의 대화》(평민사, 1987)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화운동을 전개한 강원룡 목사의 고회를 맞아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만든 기획 출판물로 강목사의 삶과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아울러 살피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로 나뉘 사회부문에서는 정치·경제·여성·종교·언론·교육·문화 등을 주제로 이흥구·조승혁·이인호·법정·양호민·정원식·이여령씨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 사람의 생애를 주제별로 부각시키는 한편,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계시키는 이 책은 잊혀졌거나 소홀히 다뤄진 사건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역사적 기록의 가치도 있다.

《이 땅에 평화를》(햇빛출판사, 1989)은 김수환 추기경과의 대화 모음. 이삼열 교수와의 대화를 제외하면, 모두가 관훈클럽 토론회를 비롯한 언론인과의 대화이다.

“우리 사회의 경직성은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데서 깊어지고 있으며, 대화 통로가 없다가보다 대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나 정치력으로 문제를 풀 수 없거나 풀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추기경이 어경택 당시 동아일보 문화부장과 나눈 대화의 한구절이다.

국내에서 출간된 대화록은 이 정도가 고작. 80년대 중반 최일남씨 같은 노련한 인터뷰어에 의한 대담집이 인기를 끌었지만, 한편에 담기에는 주제가 분산되는 다양한 인물을 담았고, 취재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11인의 위대한 작가들》(책세상, 1997) 역시 취재기에 속하지만, 성격이 약간 다르다. 인터뷰 대상으로 작가들을 선정했고, 한 사람이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작가마다 인터뷰어는 다른 사람이다.

이 책은 89년 《나의 삶 나의 문학》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것을 표지와 구성을 새롭게 만든 개정판. 《파리 리뷰》 문학담당 기자들이 20세기를 대표하는 문인인 로버트 프로스트·T.S.엘리엇·보리스 파스테르나크·윌리엄 포크너·어니스트 헤밍웨이·파블로 네루다·아서 밀러 등을 만났다. 대담자들은 신변잡기부터 작가의 작품과 배경이 되는 정치·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예리한 질문을 던진다.

대화를 통한 진리 탐구

문학담당 기자의 문학과 세계에 대한 이해력과 작가의 명철한 시각 및 열정이 어우러져 대담은 빛을 발한다.

“작가가 그가 사는 시대의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조지 플립튼)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법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사상을 가진 작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만일 그의 작품이 뒤에 남는다면 독자는 정치에 관한 부분을 무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정치에 입적했었다는 수많은 작가들은 정치사상이 자주 변합니다. 이것은 그들과 정치문학 비평가들엔 아주 신나는 일이지요.”(헤밍웨이)

질문과 답변에 의해 진리를 깨우치는 대화법은 소크라테스 이래로 서양의 지적 전통이다. 20세기의 사상가들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출판사가 현대 사상가의 핵심 사상을 정리한 ‘입장 총서’ 가운데 대화 형식을 취한 것은 세권이나 된다. 질 들뢰즈·르네 톰·미셸 세르가 그 주인공. 들뢰즈의 책은 제목 자체가 《대담》이고, 수학자 르네 톰의 《카타스트로프의 과학과 철학》은 구조적 안정과 형태 발생을 연구하는 카타스트로프이론을 대화 속에 풀어놓았다.

《해명》은 미셸 세르와 파리 고등광산학교 사회학 교수 부뤼노 라투르가 나눈 대담. 인간의 지식과 인간적인 불행에 뛰어넘어 참된 지혜의 세계로 이끄는 메신저인 ‘헤르메스’를 자처하는 철학자 미셸 세르는 교육과정·방법·증명·비판의 종말·지혜 등을 주제로 한 대화에서 과학과 문학을 종합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펼친다.

《마르쿠제와의 대화》(이문출판사, 1984)와 《프로이트와의 대화》(종로서적, 1982)는 비슷한 제목을 가졌으나 속사정은 판판이다. 사회철학의 대가 마르쿠제가 하버마스를 비롯한 석학들과 나눈 비판적인 의견교환을 담은 앞의 책은 제목 번역을 제대로 했다. 하지만 뒤의 책은 원제가 ‘라이히, 프로이트에 관해 말하다(Reich Speaks of Freud)’로 번역서의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프로이트의 제자인 빌헬름 라이히가 스승인 프로이트에 대해서 회상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지, 프로이트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

최근 출간된 대담집으로는 《신과 인간들》과 《감성의 승리》가 있다. 《신과 인간들》(장락, 1995)은 피에르 신부와 장관을 지낸 인도주의 의사 베르나르 쿠슈네가 빚어낸 ‘합의의 장’이고 《감성의 승리》(중앙일보사, 1997)는 제일교포 기업인 손정의씨와 일본 소년의 오가 노리오 회장이 나눈 대담.

우리 사회의 대화 빈곤은 화제의 빈곤에서 비롯한다. 세대간의 대화단절 극복은 공통된 관심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책은 무궁무진한 화제의 샘이지만, 컴퓨터는 아닌 듯하다. ‘최불암 시리즈’의 주인공은 컴퓨터를 독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너 먼저 가서 자 임마” — 최성일 기자

POINT line
포인트라인

“자 금 은 구 상 중 입 니 다”



● 이름: 김중기 ● 별명: 까시
● 직책: 기획실장 ● 성격: 온순과격
● 상gi자는 포인트라인 기획실장으로서 꽤 웃기고 항상 실없이 웃고 다니지만 일 앞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존심 있는 그러한 포인트라인이 되겠습니다.

● 일러스트레이션부	● 광고디자인부	● 연구기획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입체일러스트 · 수채화 · 파스텔화 · 지점토 · 유화 및 기타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보 편집 기획 · 단행본 / 카다록 · 리플렛 · 신문, 잡지광고 · 표지디자인 · 브로슈어 · 포스터 / C. 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단행본 기획 · 유아도서 기획 · 아동도서 기획 · 학습지 개발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7가 31 한일빌딩 3층
● 전화 : 928-3491 ~ 3 ● 팩스 : 926-2246

부설 : 일러스트 연구원 연구생 모집

기 초 과 목	본 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채화 · 유 화 · 뎃 생 · 아크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러스트 채색 · 종이일러스트 · 일러스트 뎃생 · 편집이론 · 구도론

일러스트전문학원
포인트라인

● 상담문의 : 928-3491(대)
“전화하셔서 김민철 선생님을 찾으세요”